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28호
8월 17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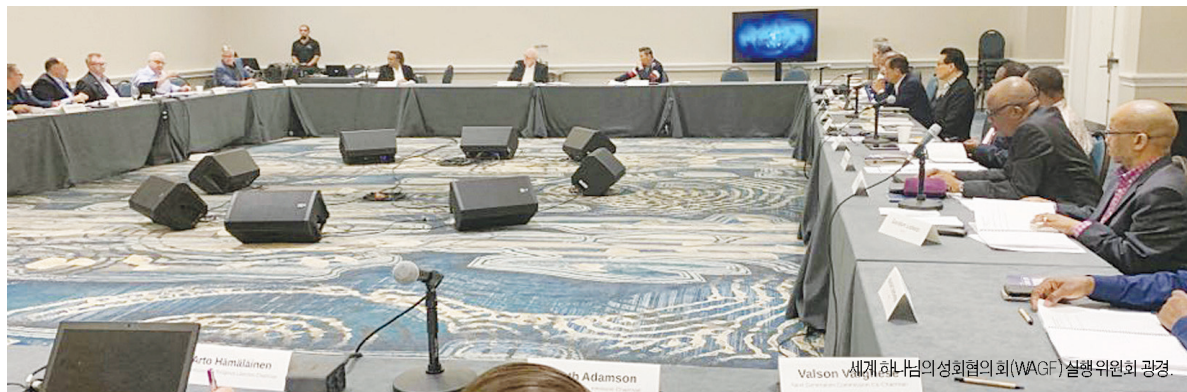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WAGF 실행위원회, 美 올랜도에서 열려

(세계하나님의성회협의회)

‘2020 세계하나님의성회 대회’ 스페인에서 열린다!

‘부흥을 위한 10년’ 계획 수립

세계하나님의성회협의회(WAGF) 실행위원회가 8월 4일과 5일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로젠 센터 호텔에서 의장 조지 우드 목사와 총괄(A. Lange) 실행위원인 조용목 목사를 비롯 전세계 2백여 국가, 36만 교회를 대표하는 실행위원 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실행위원회 일정과 장소는 지난해 6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렸던 실행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올랜도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하나님의성회의 정기총회 직후에 열려 내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하나님의성회 대회(WAGC)’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실행위원회는 협의회 신하 세계선교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 각 위원회와 대륙별 보고에 이어 인신매매와 성매매 문제, ‘부흥을 위한 10년 계획(Decade of Revival)’ 등 주요 현안을 다루고 교회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 대회에 이은 2023년 세계하나님의성회 대회’의 개최지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를 결정하였다.

한편, 조용목 목사는 실행위원회 개최 전인 4일

(주일) 오전 11시 올랜도 아름다운교회(담임 엄준용 목사)의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었다.

폐회 후인 8일(목)에는 은혜와진리교회의 선교협

력교회인 캐나다 챔페인 라이프 센터’ 교회를 방문하여 운집한 성도들에게 조용목 목사의 동역으로 은혜와 관능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역자와 성도들을 격려해 주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조용목 목사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약 1:2~4)

성도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 할 수 없이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와주시지만 시험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시험의 종류와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핍박, 유혹, 장애와 곤란, 희생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만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생의 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검증하여서 상을 주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악한 의도로만 사람을 시험합니다. 신자들을 시험하여 신앙생활이 침체에 빠지게 하고 세속에 물들게 하며 이단에 끌리게 합니다. 핍박과 환난이라는 수단을 통해, 유혹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교회에서 대인관계가 미숙하고 성격이 원만치 못한 사람들로 인해 상처 입는 신자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중동합니다. 교회에 나가려고 작정하는 사람이나,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성직자 혹은 교인들에 관한 좋지 못한 일들을 보고 듣게 하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시험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양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울고 웃으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환희와 희열을 맛보아야 합니다.

나. 그리고 주 안에서 기약된 금세와 내세에 걸친다. 형언할 수 없는 복과 기쁨을 깨닫고 행복감을 느껴야 합니다. 둘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약 1:12) 셋째는,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약 1:2~4) 넷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 6:13) 다섯째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딤후 6:9,10) 여섯째는, 시험하는 사탄을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약 4:7) 일곱째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삶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이 삶의 목적인 사람,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변함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해를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가 되어 버립니다. 여덟째는, 시험을 견디고 이기므로 얻게 되는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삼가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라 너희 믿음의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함이라.” (벧전 1:6,7) 반드시 삼가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자기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 2:18)

여러분은 시험당할 때 외롭지 않습니다. 시험당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언제나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선교전략 논의, 협력다짐

아시아 태평양 하나님 의성회 총회장 모임(APAGF)



아시아 태평양 하나님 의성회 총회장 모임(APAGF)이 지난 7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인도네시아 발라에서 16개국에서 온 총회장들과 신학교 관계자들을 청년국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려 인도네시아 하나님의 성회의 섬김으로 귀한 시간을 가졌다.



미 하나님의 성회 이태 지역 제프 목사님과심용재 목사.

이번 총회장 회의에서는 각 총회 상황 그리고 선교에 관하여 나누었으며 분과별로는 다음 세대 그리고 신학교 상황을 보고 받았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총회 상황과 기독교계에 침투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이수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밝혔으며 또한 총회 목회자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 아울러 한반도복음화와 한반도평화를위해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선교지에 총회 선교사들이 직면해 비해서 더 파송되었고 총회는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나라 하나님의성회와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선교전략들을 함께 세우고 협력하자는 우리 교단의 제안에 내년 회의 때 선교에 관하여 나누고 협력하기로 하였다. 현재 세계 하나님의성회 선교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작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약 112 개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 보고되었다.

특별히 이번 회의를 통해 많은 총회가 우리 총회에 관심을 가졌다. 이번 새로 총회장인 일본 총회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님과태평양 지역 제프 목사님

장 키오시 수처이 목사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를 일본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우리 총회가 일본 하나님의성회와 함께 동역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총회장 웅 목사도 조용목 목사를 뵙기를 원했으며 같이 우리 총회와 협력하기를 원했다. 또한 미국하나님의성회 아시아 태평양 담당 제프 목사도 우리 총회와 조용목 목사를 뵙기를 원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신학교원(APTS) 학장 위담원 목사도 우리 총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 또한 피지, 베트남, 미얀마 등도 우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함께 협력하기를 원했다.

끝으로 2020년과 2021년 회의 장소를 의결하고 모든 회의를 마쳤다. 2020년 회의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2021년 회의는 피지에서 갖기로 의결 하였다. 또한 내년 2020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세계 하나님의성회 성회에서도 만나기로 하였다. 2020년 3월 19일~21일 현재 등록을 받고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세계하나님의성회 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하였다.

차별금지법 반대, 나라와 교회 위해 기도

제68차 총회 제4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4회 임원회가 지난 8월 13일(월) 오전 11시 30분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세력들의 계계를 과감히 물리치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한미음 되어 기도한 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재무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정영진 목사의 기도, 총무 이경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이날 갈 2: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합입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축복했다.

이경진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의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령,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제7회 청소년연합수련회, 아시아 태평양 하나님의성회(APAGF) 총회장회의 참석, 신임 부흥사회장에 김기진 목사(예전 순복음교회)가 선임되었음을 알렸다.

이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기인 청원, 교회전출인 청원, 교역자전출인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주소변경 보고, 지방회 명칭 변경 청원 건 등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2019년 전국신학생연합 개강수련회, 전국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개최, 2019년도 목회자 평생교육원 교육 일정, 제2차 실행위원회 준비 등의 내용이 보고되어 각종 여름행사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나라와 한국교회 위한 2차 기도회

한교연, 10시간 뜨거운 릴레이 기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8월 5일(월) 오산리 기도원에서 '한국교회여, 기도의 심장을 멈추지 말라!'를 주제로 제2차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제1차 한국교회 비상 특별기도회에 이어 오는 9월 2일까지 2차 특별기도회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는 한교연은 이날 오산리 기도원에서 연인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광준 목사(추진위원장)에 이어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를 강사로 10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했다.

조재규 목사(특별기도회 추진위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상임회장 김효종 목사(호헌 총회장)의 기도와 이연홍, 임은경 찬양사역자의 특송, 권태진 목사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창 17:8-13) 제목의 설교, 통성기도 순으로 진행돼 권태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권태진 목사는 설교에서 "남북, 한일 관계 갈등으로 안보 위기, 경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 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심함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살려내야 한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신이 아닌 나라를 대표해 경기에 나가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설교에 이어 통성기도 시간에 1천여 성도들은 '한국교회 본질 회복과 삼합(하합 연합 통합)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와 복음 통일을 위해'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자유 수호를 위해' '국가 안보 경제 사회 바른 역사관 수호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경제 갈등 해소를 위해' 교회 고유권한 침해 중지 및 반인륜적 교육·제도의 폐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2019 제주도 희망캠프’ 봉사활동

장기기증, 대원외고 해도지 봉사단과 함께 진행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가 7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 리파의 집에서 대원외고 어고등학교 해도지 봉사단과 함께 '2019 희망캠프'를 진행했다.

만성신부전 환자 휴양시설인 제주 리파의

집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9명의 참가 학생들이 본부 관계자를 통해 국내 장기기증 및 이식의 현황과 인식 개선 필요성 등을 배우고, 실제 환자들을 만나 부병생활의 어려움을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인공신장실에서 "만성신

부전 환자들은 수분이 신장을 통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물조차 마실 수 없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가슴이 아파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제주 리파의 집 각 방을 돌며 창틀을 닦고 정원을 정리하는 등 정성을 다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를 마친 뒤에는 특강과 관련 영화를 관람하며 장기기증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생명나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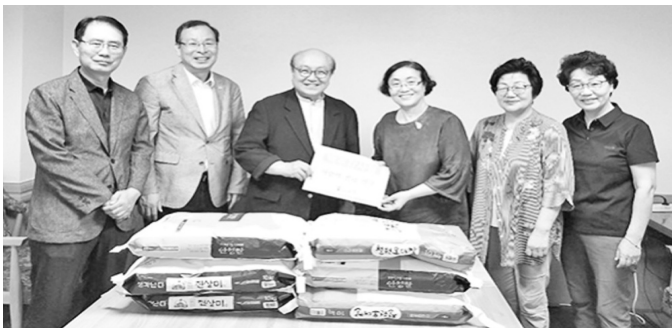
해도지 봉사단원들은 끝으로 제주 리파의 집을 떠나며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만성 신부전환자들을 위한 사랑의 콘서트'를 통해 모은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해 따뜻한 손길을 보이기도 했다.

‘예순사모회’에 사랑의 쌀과 현금 전달

거룩한씨성동교회, 맥추감사절 때부터 모금운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거룩한씨성동교회(회장 영 목사)는 7월 31일(수) 총회본부에서 여성 순직 목회자 사모들의 모인인 예순사모회(회장 김경희 사모)에 사랑의 쌀 300여 kg과 현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거룩한씨성동교회 이영훈 원로목사와 교회 복지위원회 소속 김윤성 장로와 하봉희 장로, 그리고 예순사모회에서는 김경희 회장과 박용인 사모가 자리를 함께했다.

회장 김경희 사모는 "저희 홀사모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올해 초에 있었던 총회에서의 지원에 이어 이렇게 개 교회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은혜롭고 가치 있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영훈 원로목사도 "개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예순사모회 회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거룩한씨성동교회 교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모금운동에 나섰다"고 전하며, "여러 사모님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좋은 간증이 되고 신앙생활에 큰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숙인 및 독거노인 점심봉사활동

한장총 여교역자협의회 임원일동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여교역자협의회(회장 김희선 목사)는 (사)해돋는마을을 방문하고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수료예배 인도 및 점심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서울에서 노

숙인들 식사 제공 등의 활동을 하던 (사)해돋는마을(대표 장한일 목사)이 마포구 대흥동으로 이전을 하여 노숙인 뿐 아니라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설교를 맡은 김희선 목사는 "위한 것을 얻으려면"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천국보다 귀한 것은 없다"며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복음으로 위로를 전했다.

해돋는마을 대표 장한일 목사는 "한장총 여교역자협의회 회원들의 사랑의 방문에 감사하며, 새 삶을 찾을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하여 자립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하여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노숙인들 중에 새 삶을 위하여 결심을 하니, 많은 경우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좌절하는 사례를 설명하고 알코올중독에서 해방되기를 위하여 모두가 함께 기도했다.

2019뉴욕성시화총력전도대회 성료

뉴욕 맨하탄 중심가에서 도시선교 활동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7박 8일 동안 뉴욕 맨하탄 중심가에서 실시한 '2019 뉴욕성시화총력전도운동'이 2만여 명의 뉴욕시민과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폐막했다.

국제도시선교교회와 미국 동부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김호성 목사)가 미국의 재부흥을 소망하며 연간 6,000만 명이 찾는 뉴욕의

중심 맨하탄의 메이시 백화점과 타임스퀘어 광장 등에서 전개한 뉴욕총력전도운동에는 미국 뉴욕 동부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김호성 목사를 비롯해 센트럴교회 김재열 목사, 프림스교회 하연형 목사, 뉴욕성결교회 장석진 원로목사 등 목회자 50여 명 등 연인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하루 30만 명

이 찾는다는 메이시백화점 앞과 삼성, 현대, 코카콜라, 아이폰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현란한 전광판 광고를 하는 타임스퀘어광장 앞과 뉴욕대학교 워싱턴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담은 '스마일' 전도지를 시민들과 다민족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또한 롱아일랜드 청소년들의 태권도 공연과 예수사랑교회 어린이와 청년대학생들의 워싱턴 공연 등도 큰 주목을 끌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한 도시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동"이라며 "시민들이 일생에 단 한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인생에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예총연, 선교협 제1차 선교대회 개최

선교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시게 하는 것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강용희 목사,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이하 예총연) 신하 선교협의회(회장 이하영 목사)는 지난 8월 1일(목) 오전 11시 여전도회관에서 제1차 선교대회를 갖고 온전한 복음으로 이 땅의 영적대각성을 일으키는데 선교협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강용희 예총연 대표회장은 선교대회에서

앞선 대회사를 통해 "오늘 첫 선교대회를 갖는 선교협의회는 미약한 시작이지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협의회가 되어 주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21세기 영적대각성을 통한 선교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선교협의회 회장 이하영 목사는 고후 5:13-14 말씀을 본



이 목사는 계속해서 "선교는 숫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불붙인 영혼들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의 인도로 합성기도시간을 갖고 '21세기 영적대각성',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정복음화', '교회주변지역 복음화', '남북 복음선교로 하나 되는 통일', '세계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태국 메시아 교육선교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사)성민원, 성민청소년복지학교 개강

지역사회 섬김과 나눔 실천에 앞장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소속 단체인 (사)성민원이 매년 2기에 걸쳐 실시하는 성민 청소년복지학교가 40기를 맞았다. 성민원은 지난 7월 22-24일 군포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기 성민 청소년복지학교를 개교하고 청소년기의 바른 국가관과 사회관을 정립하기 위한 강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나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실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40기 청소년복지학교는 개교식에서 이어 첫날은 주대준 장로(전 카이스트 부총장, CTS인터내셔널 회장)를 강사로 '대한민국의 사랑과 비전'을 주제로, 둘째 날은 홀미숙 시설장(성민재가복지센터)을 강사로 '고



령사회와 노인문제',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연주 국회의원(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이 "좋은 날이 오게 하자"를 주제로 청소년의 꿈과 비전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이연주 의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부모님들이 일제강점기와 6.25전

쟁의 온갖 고난을 딛고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이룩하기까지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며, 장차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해 각자의 맡은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9 HMTCT선교훈련 수료예배

20여 명의 문화선교사 배출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온 세계에 전하는 호프월드미션(HMTC, 대표 김용국 선교사)은 지난 7월 29일(월) 오후 7시 30분 서대문구 총천로 소재 월드미션 강당에서 '2019 HMTCT선교훈련 수료예배'를 드리고 이 땅

에 선교의 불길을 강력히 일으킬 것을 다짐했다.

이날 수료예배는 송기복 선교사(랍보다이 선교사)의 사회로 유영덕 목사(기독교방송연합회 상임회장)의 기도, Hope이웃사랑의

특별연주, 대표 김용국 선교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국 선교사는 행 16:6-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지팡이 끝을 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호프월드미션의 목적인 선교의 불길을 이 땅에 강력히 일으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대표회장 한인수 장로는 축사를 통해 "기독교문화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립이다. 이것이 오늘 선교사 자격증을 받는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세대 세우기 위한 유소년 여름캠프 개최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정준 목사·순복음후영교회)는 지난 8월 1일(목)~3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청주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여호와의 사랑' (호 6:1-2)을 주제로 유소년 여름캠프를 가졌다.

이번 유소년 여름캠프는 지방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동순 목사) 주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회 신하 20교회 20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충만 하고 은혜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강사진으로는 김정준 목사, 유순호 목사, 김윤배 목사, 김성근 목사, 기호선 목사, 최동순 목사가 능력 있게 인도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1일(목)에는 개회예배, 오리엔테이션, 레크리에이션, 분반공부 및 소그룹기도회, 성령대방회를 가졌고, 2일(금)에는 분반공부, 특강, 공동체 훈련, 물놀이, 성령대방회를 가졌으며, 3일(토)에는 분반공부 및 소그룹기도회, 특강, 나눔과 시상, 폐회예배 등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충북지방회는 이번 유소년 여름캠프를 위하여 개인별 회비 2만원을 제외한 부족한 행사 비용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외 각 교회에서 700만 원 정도의 후원금과, 간식후원으로는 순복음후영 교회에서 수박 15통을, 기쁨충만 교회에서 복숭아 10박스와 수박 15통, 맛있는 빵을, 내수평강교회에서 음료수 200개를, 괴산순복음교회에서 과자 6박스를, 아멘순복음교회에서 아이스크림 200개를 지원하였다.

며 지방회에서 200명이 먹을 수 있는 와플 등을 후원하여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또한 이번 여름 캠프를 시행하기 앞서 7월 20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각 교회 30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 교사강습회를 열어 미리 배우고 준비하고 기도하였으며, 이날 강습회를 위하여 교육위원장 최동순 목사, 교육부장 신병설 목사, 교육위원 기호선 목사, 민병훈 목사, 정재광 목사와 임원진들이 수고하였다.

앞으로 충북지방회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고, 내년 수련회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교회가 참여할 것을 약속하며, 여름캠프를 마무리하였다.



진리충만, 사명감충만 ... 청년봉사선교회 여름수련회

투철한 애교심과 애국심으로 무장, 교회와 나라 위해 기도

은혜와진리교회 청년봉사선교회 여름수련회가 8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원성전에서 '무엇에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렸다.

청년들은 다채로운 순서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젊은 날에 더욱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교회의 3대 목표를 위해 앞장서 헌신하며 복음전파에 힘을 다짐하였다.

첫날 개회예배, 조별모임, 특강이 진행된 후 저녁에 바울성전에서 당회장 조응목 목사를 강사로 이번 수련회 주제 특강이 열렸다.

GNTC뮤지컬의 특송, 방송통신선교연합

회가 편지·제작한 '역사바로알기 캠페인' 동영상 시청에 이은 특강에서 조응목 목사는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청년들의 헌신과 기도생활을 격려하고, '생각의 내용과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었다.

이어서 조응목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생각, 자신이 겪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역설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생각의 내용과 방법을 성경에 부합하도록 판단하고 선택하고 조정하며 살아가도록

청년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어서 조응목 목사는 건강하여 열심히 주를 섬기며 각자의 소중한 꿈을 주 안에서 성취하도록 신의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다.

2박 3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서 청년들은 교회의 3대 목표를 주제로 각각의 특강과

관련 활동, 북한선교회 특강,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신령한 지식을 쌓고 기도회에서 교회부흥과 국가안보를 위해, 성령충만과 소원 성취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와 함께 아침 산책과 물놀이 등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믿음을 복돋워 주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포토뉴스



군선교위원회 중동부전선 00통신중계소 방문, 위로와 격려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8월 1일(목) 폭염이 전국을 강타해 많은 국민들이 휴가지를 찾은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폭염도 아랑곳 않고 국토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동부전선 00통신중계소를 방문하여 오지에서 수고하는 병사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군선교위원회는 준비해간 위문품을 전달하고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건강을 잃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잠 15:1-6 말씀을 통해 "군생활의 승리는 겸손과 유순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배려하고 위로 격려해 주는 것이 승리의 생활"이라고 전했다.

선한빛교회 창립감사예배, 복음 전파 다짐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7월 29일(월) 오전 11시 전라남도 광양시 영수3길 49에 위치한 선한빛교회(담임 이태우 목사)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응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배용환 목사(순복음전원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독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마 16:13-20 말씀을 본문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는 주의 종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세운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으며,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풀고 때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강조하며 선한빛교회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며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을 축복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지방회장의 창립 및 취임선교 후 축사와 관련 시간에서는 증경지방회장 최형택 목사가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될 것을 권면하였다.

문현주 전도사(순복음광양교회)의 헌금기도 이후에는 담임목사의 가족 전원이 나와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라는 찬양곡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예배에 참석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 이어서 담임 이태우 목사는 취임인사

에서 마 24:45-47 말씀을 통해 교회 창립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여 선한 일에 합쳐져 세상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를 부탁하였다.

증경지방회장 김갑신 목사의 축도로 창립감사예배를 마친 후에는 선한빛교회에서 준비한 감사의 선물과 풍성한 오찬으로 감사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생명의 말씀 ■



정 형 기 목사

· 교단 재판위원장 역임
· 즐거운우리 집요양원 이사장
· 자유동일호국동지회 대표회장

부메랑 놀이를 아시지요? 부메랑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이 놀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을 보면 넓은 공원에서 바닷가 해변에서 낮처럼 되어있는 구부러진 부메랑을 공중 높이 던지면 정확하게 던진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을 받는 놀이입니다. 우리 인생은 부메랑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78)

일본은 36년간 우리 민족을 억압했습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수난과 슬픔을 절실하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은 쉽게 잊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74년 되는 해이지만 역사를 조명해보면 당시 우리 민족의 조선 왕조는 집안에서 당파싸움을 합니다. 당파싸움(지금도 여야/진보/보수)을 하다 보니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보다는 기득권 다툼이 먼저 인듯합니다. 이 틈을 이용해 일본은 대한민국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완용과 이등박문이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은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심지어 안보까지 권한을 일본이 쥐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점령하고 그 세력을 넓혀 가던중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는 일본인으로 가장하여 하얼빈 역에서 러시아 군의 인사를 받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데 성공하고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행법에 따라 사형언도를 받고 항소할 수 있었지만 그의 모친의 뜻대로 1910년 3월 26일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일본놈들은 이완용을 앞세워 순종황제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하고 대한민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보면 훌륭한 선장을 알 수 있듯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애국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관, 군인, 국회의원, 장관 아닙니까. 진짜 애국자는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들은 목숨 내놓고 나라를 위해 항거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31운동도 38평중 16명이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어 항거했습니다.

이후 일정시대 때 신사참배에 항거하다 결국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장부에서 총회장급 12명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고 한기총 목사들은 그들로 하여금 전광훈 목사를 위협이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번 핍박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애국자인 것입니다.

일본은 히로시마 원폭공격에 항복하여 비로소 1945년 8월 15일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1)공산주의를 받아들여 인민공화국이 될 것인가? 2)아니면 아남을 시점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74년이 지난 지금에 와보니 북한은 가장 못사는 저지나라가 되었고 우리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세계영적국기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국회 속기록에 보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윤형 목사의 대표기도로 시작했으며 초대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내정되었고 1948년 7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비로 세워진 나라이며 새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 정부가 세워졌다고 말하며 취임

선서를 한 것입니다. 나 이승만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과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름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146:5)

그러나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몰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공산국가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언론들이 단 한군데도 보도하지 않고 도리어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영적싸움, 영적전쟁입니다. 영적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무기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 인간 방백들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아람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 정

나사렛대 새 총장에 김경수 교수



나사렛대학교는 지난 7월 29일(월) 이사회를 열어 기독교학부 김경수 교수를 제8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김 신임 총장은 8월 말 임

기가 끝나는 이승만 총장 후임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4년간 임기를 맡는다. 김 신임 총장은 “교직원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대 양명숙 교수, 논문상 수상



한남대(총장 이덕훈)는 지난 8월 6일(화) 상담학과 양명숙 교수가 제자와 함께 한국상담학회 우수학술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양명숙 교수와 제자인 김윤희 한남대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이 발표한 ‘자살위험 대학생의 생존요인인 인식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은 실제 현장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크리스천 CEO 대상 책쓰기 코칭



크리스천 CEO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책 쓰기-마스터클래스’(봉은희 작가)가 이번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년 2회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이 과정은 자기 이야기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책 쓰기 방법을 교육한다. 오는 9월 19일(목) 시작,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에 열리며 교육전문기관(㈜한국교육센터(kshrd.com))가 주관한다.

고신대복음병원, 베트남과 협력



고신대학교복음병원(고신대병원·병원장 최영식)이 지난 8월 2일(금) 베트남 호찌민시 동안성종합병원 원에 원격거점센터를 열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에 이은 네 번째 해외 거점센터다. 고신대병원은 동안성종합병원과 협력해 의료진 협진, 의료교류 세미나 원격 개회, 베트남 한자의 원격상담 등을 진행한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광복 74주년·정부 수립 71주년을 맞이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이후 올해로 광복 74주년을 맞는다. 36년간의 지난(至難)하고 필설로 다 표현하지 못할 비극적 식민지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민족이 해방된 것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민족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 침략주의에 맞서 싸운 연합국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미국이라는 이역만리 떨어진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들의 도움으로 해방이후 남한만이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도록 하셨다. 그 주어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인물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것이다.

역사기술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등장시키지 않으나, 그래도 만약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이 탄생했었겠는가? 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역사가가 많다.

그 동안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학습해왔

던 역사왜곡이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이화장(梨花莊)에 비장되어 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평가가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독립운동가 중에서 외교독립노선을 추구한 인물로 평가 받아야 한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하에서 치열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정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는 초석을 놓았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역사적 팩트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광복 74년이 되도록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급기가 심각한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이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참회가 부족한 탓도 있으며, 우리나라가 과거사를 딛고 진취적 역사 발전을 위한 의지의 부족도 있다고 본다.

그에 더하여 광복 74주년을 맞는 2019

년에 한·일 관계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의 부재와, 오히려 갈등을 국제정치적 손익 계산에 의하여 더 몰고 간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여 진다.

그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우방 국가)끼리는 수출 때 허가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제3국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에 사용하는 부품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과 대비됨)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화학, 기계, 자동차 부품, 비금속 등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품목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외에도 반도체, 정유, 철강 등 1,100개 이상의 품목에 규제를 당해서 우리 경제에 적신화가 커지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 한국(조선)을 강압적 식민 지배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다가 해방 후 냉담한 관계를 70여 년 지속하

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면서 한·일 청구권을 통하여, 당시 3억 달러를 배상하고(지금의 환율로 따지면 약 1,000배 차이가 난다고 함) 2억 달러의 경제 차관으로 제공했다(물론 이 때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는 분명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년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종결됨을 양국이 선언하게 되었다.

이후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판결, 수출 규제 보복 등 한·일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광복 74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71주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역사에서 한참 뒤떨어진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아닌, 자유대한민국의 번영과 국가의 안위와 세계평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몰역사(沒歷史)의 위험성보다 역사 왜곡의 위험성이 더 커다는 현실을 보고 있다. 저열한 정치선동가들이 역사까지 왜곡하고 타락한 언론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여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꾼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위험한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국가 현실과 국제적인 문제의 엄중한 현실에서 교회의 사명은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베푸신 은혜, 우방들의 고마운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교회지도자들이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으면 평화, 그리고 전쟁 없이 이기는 길을 가야 한다. 국가의 큰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광복 74주년·정부 수립 71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 12:18)

http://agpgs.aogk.org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장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장양식) 1부
- 반영향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 5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8.15광복 74주년 설교

박종호 목사 // 연합교회,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겔 37:22-23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믿고 도움을 청할 나라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을 위시하여 북쪽으로는 북한과 그 위에 러시아 옆에는 중국 등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적들에게 갇혀있고, 미국조차도 지금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직 도움을 받을 곳과 열린 곳은 한 곳 하늘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방법을 찾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8.15 광복은 어떻게 왔습니까?

분명한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이룬 광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므로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얻어진 아주 귀하고 값진 광복이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에 우리가 생각하여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일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된 배경 중에 살아하던 좋아하는 미국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도움과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으면서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하였고, “우리도 한 번 잘살아보자”고 외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였기에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종교와 문화일 것입니다. 그중 아주 나쁜 것이 들어 왔는데 다음 아님 WCC(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WCC(에큐메니칼교회)는 평화, 공존, 대화, 교제, 정의 등의 명제를 내세워 사람의 눈을 현혹시켜 속이

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우리 기독교회를 세상 여러 종교와 혼합시켜 없애버리고자 하는 사단의 간계로 만들어진 단체인 것입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름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세계종교협의회입니다. 더 나아가 WCC는 이 세상의 여러 잡신들과 미신과 악령들이 함께 역사하는 정체성을 가진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적인 단체이며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교회라는 것은 명분에 불과 할 뿐 실제로는 교회단체가 아닙니다. WCC는 동성애와 일부다처제 및 공산주의, 기림과 단체 등을 용인·조장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WCC가 북한정권의 독재와 인권 탄압 문제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해명이나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3년 10월 제10차 WCC 부산 총회가 끝난 뒤의 WCC는 사회구원 지상주의, 용공주의, 등은 변함없이 지향하고 표방하고 있는 현실이며, 후유증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동성애와 친북(중북)주의자들의 독재입니다. 국민의 정서가 이들을 받아 주지 않으니 공산주의와 동성애 보호법이란 말 대신 듣기 좋은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바꾸어서 자기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려 편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기독교의 반대로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전국 시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내서 현재 통과된 곳도 있고 부결된 곳도 있는 현실입니다.

동성애를 용납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올바른 성문화가 무너집니다.

한문성교 - 에이즈 걸리면 죽을 때까지 국가가 100% 책임집니다.

국가예산 2016년만 해도 5천억 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수간 : 집중하고 성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 다음 선거 때 절대 표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일 금식으로 지켜진 나라입니다.

원래 6.25전쟁 중 한국전쟁에 연합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철저한 반공주의자)이 한국의 인천상륙작전을 하여야 한다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에게 보고하며 승인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트루먼은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립이며, 기도의 사립인 맥아더 장군의 아버지와 맥아더 장군이 3일간 금식기도를 하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나아갔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당신 뜻대로 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것이며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맥아더 장군에게 크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순한 자들이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여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로 지켜진 나라입니다. 한국에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지금쯤 공산지하에서 북한 동포들처럼 자유는커녕 밭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상당하였을 터인데 일부 극소수 반미파들의 행동을 저지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에 국난에 처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겪고 있는 최대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 평생교육

정영진 목사 // 예하성 교단 서기, 부산갈릴리순복음교회

제2의 목회발판이 되길

‘평생 목회자 교육원’이 세워지게 됨을 감사드리고 ‘평생 목회자 교육원’을 통해 ‘제2의 목회 발판이 되었다’는 가슴 뿌듯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990년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장관이었고, 문화가, 교수였던 어려움 씨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 딸이 암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난 이야기이다.

아들 씨는 언제나 글을 썼고, 책 읽는 것에 심취했지만, 가족의 아픔에 대하여는 생각지 않았다.

딸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고, 홀로 남은 아버지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눈물로 주조 않는 편지를 썼다.

그 책이 바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이다.

이 책에는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남은 비디오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키만큼 천장에 다리를 만들, 너 들어 올리고 줄을이온 너의 눈 상가된 너의 뺨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라는 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아픔이 느껴진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낱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 16:3)라고 하셨다. 낱씨의

분별은 경험과 지식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시대를 분별함에는 지식이 더하여 정보가 필요하다.

아무런 정보도 교육도 훈련도 없이 묵묵히 목회의 길을 가다가 문득, 목회의 그 어느 날에 뒤를 돌아볼 때, ‘못다 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같은 아쉬움은 없을까? 좀 더 알았다면, 좀 더 열심을 내었다면 하고 후회하지는 않을까? 코앞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자책하지 않을까?

이번 제8차 정기총회를 통해 우리 교단에 ‘평생 목회자 교육원’이 세워지게 되었다. 시대에 맞는 많은 정보, 목회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얻고 또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흠이런 마음을 다시 추스를 좋은 기회이다.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남은 비디오테이프를 되감듯이’ 하는 후회보다는 ‘평생 목회자 교육원’을 통해 ‘제2의 목회 발판이 되었다’는 가슴 뿌듯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 복음의 통로 ‘복음밥TV’ 런칭

다양한 콘텐츠 통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는 공간으로

사단법인 복음의전함(이사장 고영민 장로)이 기독교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복음밥TV’를 라뉴얼 런칭했다.

‘복음밥TV’는 복음의전함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이라는 키워드가 ‘복음’이라는 단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음밥TV는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따뜻하게 채워질 길 버리는 마음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기독교 기반의 채널이지만 단순히 크리스천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친숙하게 다기와 감동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재미와 감동을 더한 콘텐츠를 통해 네티즌들과 쌍방향 소통을 이뤄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소통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며, 기독교 문화에 대해 오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비기독교인들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음의전함 콘텐츠기획본부 김재원 실장은 “복음 광고를 통해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부터 직원들의 사소하지만 재미난 이야기까지, 마치 갓 지은 밥처럼 복음의전함의 생생한 소식들을 전달 예정”이라며 “특히 튀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며 기독교 문화가 익숙한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과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복음의전함의 유튜브 채널 ‘복음밥TV’는 유튜브 검색창에 ‘복음의전함’이나 ‘복음밥TV’를 입력해서 접속할 수 있다.

“어린이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

“영어로 성경을 노래해요” CTS JOY어린이영어합창단 원데이캠프 개최

“어린이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각 교회에서 인기몰이 중인 원데이캠프가 지난 8월 12일(월) CTS기독교TV에서 전국에 어린이 단원 180여 명과 인솔 교사 및 학부모 90명 등 총 2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뮤지컬 영웅의 주연배우 양준모를 비전특강의 강사로 초대해 개최되었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다음 세대 전도와 지역 교회 부흥을 위해 아산차게 기획한 원데이캠프는 미국에서 성경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심대이비틀>을 교재로 사용하며 여기에 영어교육, 합창과 인부 교육 등을 접목하여 요즘 세대의 트렌드에 맞는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는 기독교적 세

계관을 심어 주고, 지역 교회에는 새로운 전도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본 합창단을 맡고 있는 CTS라디오JOY 강병준 사장은 원데이캠프 환영사를 통해 JOY어린이영어합창단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의 빛이 되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그 운영의 목적이 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행사에는 개그우먼 김선정과 안부가 천미선 등이 각각 연기와 인부 특강 등을 진행했으며 TV 스튜디오 채현, 라디오 녹음 채현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현재 JOY어린이영어합창단)은 분사팀(CTS), 김포팀(주노교회), 부산팀(기성교회), 안성팀(안성중앙교회), 강북팀(영광성서침례교회), 서초팀(신에감리교회), 노원팀(빛가온교회), 하나로팀(김포하나로스쿨), 의정부팀(늘푸른진교회), 삼척팀(큰빛교회), 동두천팀(동성교회), 은혜와사랑팀(은혜와사랑교회), 대전엘리트팀(한진회 지하지), 성북팀(예일교회), 수지팀(갈릴리교회) 그리스팀(안양대 선교사) 등 16개 팀이 운영 중이며 올해 중에 대전팀(예들교회), 용산팀(만리현성교회), 청주팀(서남교회), 원주팀(충정교회) 등 전국에서 20개 이상의 팀이 추가로 창단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www.agtc.or.kr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경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 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2019년 제7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미래를 짊어질 미래의 주역들과 함께

‘진리’(요 14:6) 주제, 2박 3일간 포항에서
총회장 신재영 목사 등 청소년들에게 비전 심어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교단 교육국 주관 2019년 제7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대회장 신재영 목사)가 지난 8월 1일(목)부터 8월 3일(토)까지 2박 3일간 포항YPC수련원에서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하나 된 가운데 열려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과 함께 은혜충만, 말씀충만, 성령충만한 시간을 함께했다.

전국에서 지방회 신하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성령의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이번 캠프는 ‘진리’(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주제 아래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예배 설교로 시작되었다.

로 시작되었다.

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신앙인을 목표로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복음의 메신저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품고 깨어 기도하며 세계를 향해 도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 지방회 소속 교회별로 참여한 청소년 1백 50여 명은 2박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과 하나가 되었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예배 설교를 비롯 교육국장 조순남 목사, 총무 이경진 목사, 이종환 강사, 임형순 목사, 오세준

목사, 배윤호 목사, 고대운 목사, 임선주 집사의 찬양콘서트, 경배와 찬양, 공동체 훈련, 간증 및 시상 등 다양한 순서와 함께 이번 캠프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뜨거운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한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청소년들의 찬양의 열기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었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으로 ‘블랙초크베리’라고 불립니다. 가혹하고 척박한 생육환경에도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아로니아는 중세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질병예방과 치료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면서 ‘왕의 열매’ (King's Berry)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로니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신비의 열매로서 현대인의 신체의 여러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분

아로니아는 칼륨과 같은 다양한 유기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는 세포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니아 속에는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79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약 4배에 이르는 양이 포함되어 있고,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의 폴리페놀도 포도의 11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5배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 생과에 포함된 영양성분



효능

- 강력한 항산화 작용 : 유해 활성산소 제거
- 항당뇨 작용 : 혈당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 항암, 항염, 항괴양 (위 보호 효과) : 악성세포의 성장을 막고 세포 자살을 유도
- 소염, 항균(살균), 항알러지 작용 : 관절염 예방 및 치료, 알러지 증상 개선
- 시력보호 :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의 피로, 시력을 개선
- 피부 노화방지 : 활성산소를 중화해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부 손상 노화 방지 및 보호
- 심혈관계 질환 예방 : 혈전 발생 억제, 콜레스테롤 억제, 고혈압 예방, 심장질환 및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 기억력 개선 효능
- 면역력 강화

섭취 방법

아로니아는 단맛과 신맛 그리고 떼은맛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그냥 먹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과일주스와 함께 믹서기로 갈아서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잼 또는 젤리로 먹을 수 있고 건강에 더욱 좋은 효소 발효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 및 성도 여러분, 무농약으로 재배한 좋은 품질의 아로니아를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려고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504076-02-072136 (예금주 김갑신)

구입문의 010-3621-4853

환돌 아로니아농장 전라남도 여수시 삼암동 8길 38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구조(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좌실함)
-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4)호흡기, 위

- 1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1 면역력 증가

6)칼슘

- 1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1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1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1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제1학차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소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8일(수)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수 : 2019년 7월 8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부산, 울산, 경남 이어 대구 기독교 지도자들도 ‘시국선언’

“자유민주주의 아닌 사회주의 지향 의심”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대구지역 기독교 지도자 일동’ 선언문 발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기독교 지도자(목사·장로 65명)가 지난 7월 25일(목)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대구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도 8월 11일(주일) 대구서문교회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헌정부가 사회주의로 나아가려는 듯한 행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서는 “문재인 정권하의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습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마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특히 “평화통일이란 미명하에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성과에 올인하는 보여주기식 대북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북한 핵무기 위협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안보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가 경제의 사활이 달린 한·미·일 삼각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온 외교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정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을 집행하라”고 했다.

또 차별 금지법, 낙태 금지법 폐지 등 인권조례 제

정 및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어떠한 체제(體制)의 통일 국가를 목적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자유대헌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 준수할 것, 대북정책 전면 수정, 한·미·일 공조 및 동맹을 굳건히 할 것,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통제(統制)하고 침해(侵害),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시국선언문은 대구경북구국기도운동본부가 이날 오후 대구서문교회에서 개최한 ‘대구교회연합 구국기도회’에서 발표했다. 주회 측은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시국선언문에 대한 서명운동을 펼친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대구기독교지도자 시국선언문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정권하의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습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마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뚤어진 백년대계 교육정책과 편파언론 문제, 급진 노동 행위와 무능하고 한심한 공권력, 사법부의 굵은 판결 그리고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분야 위원회의 비상식적 활동, 끝없이

계속되는 잘못된 적폐청산으로 나라를 과거에 매어두고 전진이 없는 비생산적인 통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 분명함을 깨닫고 대구지역 기독교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아래와 같이 국권 회복을 위한 시국 선언을 하는 바입니다.

아래

1.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정신을 직·간접적으로 유린 파괴하고 있는 헌법 개정 음모와 일체의 계획과 그 시도들을 즉시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하게 보장하라!

2. 평화통일이란 미명하에 종북과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성과에 올인하는 보여주기식 대북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북한 핵무기 위협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안보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

3. 나라정체를 파탄하게 한 주범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분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 그리고 지난해 노동정책, 대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 고소, 고발과 편법을 동원한 경영간섭과 사회기업화 시도 그리고 대책없는 태양광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4. 나라의 안위와 국가 경제의 사활이 달린 한·미·일 삼각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온 외교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한·미·일 동맹관계를 회복하라!

5. 문재인 정권은 왜곡되고 편향된 방식의 대한민국 역사 바꾸기와 과거 정권 업적 지우는 잘못된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 정부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을 집행하라!

6. 문재인 정권은 동성애와 소수자별 금지법, 낙태 금지법 폐지 등 각계 각층의 헌법, 가정보, 인권조례 제정 및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국기독교 134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개화기부터 언제나 국민들과 함께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의 5만여 교회와 1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상황과 파탄으로 몰며,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불안감으로 휘둘러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한국교회의 애국애족(愛國愛族)하는 피끓는 마음과 역사참여 정신 그리고 시대적인 예언자적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강력히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정체성을 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

2.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체제(體制)의 통일 국가를 목적하고 있는지를 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

3. 문재인 정권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며 준수할 것을 온 국민 앞에 천명하라!

4. 비핵화를 위한 각종 선언과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정단 맞추지 말고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5. 현재까지 무너진 국방을 신속히 재건하고 한·미·일 공조 및 동맹을 무조건 굳건하게 회복하라!

6. 탈원전 정책과 대강 보(洩) 철거 등 국가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7.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 지우기와 왜곡(歪曲)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8.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통제(統制)하고 침해(侵害),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9. 국민을 속이며 다음세대를 폭망케 할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각종 증세(增稅)를 중단하라!

위와 같은 우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구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분연히 일어나 뜻을 같이하는 모든 기독교 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 설것을 엄중히 선언하는바이다.

2019년 8월 11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대구지역 기독교 지도자 일동

‘사랑나눔 뷰티스쿨·뷰티서비스’ 아름다운 봉사

월드뷰티핸즈, 청소년뷰티자원봉사자들 참여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세계뷰티핸즈(WBH) 이 시장 정현일, 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교수는 마포구청(청장 유동근)과 대흥동(동장 장재원)의 후원으로

지난 8월 4일 우리마포메이커센터에서 청소년뷰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사랑나눔 뷰티스쿨, 사랑나눔 뷰티서비스’를 진행했다.



선별된 15명의 중, 고 학생들은 지난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실버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실습 과정을 수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우리마포메이커센터를 비롯 경노동당과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뷰티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첫 뷰티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에스터 회장(신한대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 장현일 WBH 이사장, 장민욱 사무국장을 비롯한 마포구청, 대흥동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총괄진행하는 최에스터 회장은 “뷰티교실을 통해 배운 뷰티기술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르신들과 맞닿아 주며 뷰티서비스를 통해 보람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지속적인 뷰티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사)월드뷰티핸즈(WBH)는 행정안전부 승인 사단법인으로서 서울역 노숙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전문 뷰티서비스 기관이다.

나사렛대·천안시, ‘여름영어캠프’

초·중학교 대상으로 나사렛대에서 입소식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는 지난 7월 29일(화) 오전 10시 경건관에서 ‘Try Everything’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여름영어캠프 입소식’을 열고 개강했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8월 10일까지 나사렛관, 국제관, 생활관 등 나사렛대 캠퍼스 일원에서 운영되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어민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활동 중심의 10가지 수업(문학, 과학, 체육, 음악, 게임, 요리 등)과 컨트리 마켓, 탤런트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학습기간 동안 영어만 사용하

여 생활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영어구사능력을 높일게 된다.

임승안 총장은 환영사에서 “외국인 교수님들과 여러 친구들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영어 구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한국을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사렛대학교와 천안시가 함께하는 영어캠프는 2005년도에 시작하여 지난 15여 년 동안 7,9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천안시 소재 초·중학교 학생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8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19년 8월 26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8월 20일(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신 재 영
총 무 목사 이 경 진

손양원 목사 순교 69주년 기념음악회

민족지도자손양원목사기념사업회, 9월 7일 예율마루 대극장에서

여수시(시장 권오봉)와 (사)민족지도자손양원목사기념사업회(이사장 오현석 목사)는 오는 9월 7일(토) 오후 5시 G5컬텍스 예율마루 대극장에서바이올리스트 박지혜와 락밴드를 초청해 손양원 목사 순교 69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여수시가 주최하고 (사)민족지도자손양원목사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1부는 '사랑으로'를 주제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몬테의 '차르다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단조 '연주에 이오 바리톤 박경준의 특별무대 펼쳐진다. 박경준은 신상우의 '축복하노라'와 비제 오페라의 투우사의 노래 등을 연주한다. 또한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1, 여름3'을 연주한다.

이어 2부에는 '베토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와 로망스 '인생은 드라마', '희망'(베토벤 심포니9) 연주에 이어 박지혜와 박경준 그리고 더 밴드의 협연으로 '포스터와 프리이어, 영광 할렘루아' 등은 연주한다. 이 밖에도 '보혈 메들리'와 '한아리랑'을 연주해 여수시와 교회들은 물론 시민들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영혼을 적시는 선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는 지난 8월 6일 오전 6시 30분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 회관 회의실에서 제47회 초찬기도회를 갖고 기념음악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기도회는 이광식 집사(사무총장)의 인도로 이사 최석근 장로(전남CBS 운영위원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요 21:15-17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세 번 제자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라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처절한 상실감으로 갈릴리 바닷가로 갔다. 그런데 예수



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다'라며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식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밥을 같이 먹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맞이하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상대하시길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양자를 삼으셨다. 그리고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나환자들의 상처에 난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셨다. 또한 오직 예수, 일사각오 신앙으로 일제 신 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공산당에 순교를 당하셨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상대하시겠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의 행적을 스토리텔링한다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과 키아츠 개발용역 체결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사장 소강석 목사, 공동위원장 인요한 박사, 이하 보존연합)에서는 최근에 키아츠(한국고등신학연구원)와 영·호남과 충청, 경기 지역에서 초창기 활동하던 선교사들의 행적을 스토리텔링하고 국제화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용역 계약을 맺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은 빼 수 없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20세기 초, 선교사들의 피 흘린 대가인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 선교 유적지를 비롯, 지리산 유적지에 함께 기여 하였던 당시 선교사들의 활동을 근거로 스토리텔링화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든다.

당시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에는 호남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뿐만 아니라, 영·호남, 충청 지방, 그리고 경기 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여름철이면 지리산에 모이게 된다. 이때 이들이 일차적으로 노고단에 유적지를 건립하게 된다. 이차적으로는 왕시루봉에 유적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보존연합에서는키아츠와 용역을 맺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스토리텔링 작업과 국제화, 그리고 관광 자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이 계약은 7월 31일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과 키아츠가 체결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



노고단예배당 유적지

이번 용역의 진행은 박한길 에터미 회장이 지난 3월 1일 유관순 열사 기념행사 전야제인, 재미교포 단체 및 인사들이 참여한 만찬석상에서 상영된 지리산 유적지 동영상을 시청한 후, 깊은 감동을 받아 국내 선교유적지의 보존 및 스토리텔링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고액의 기금을 쾌척하면서부터이다.

이 기금을 발판으로 지리산 유적지에 기여했던 선교사들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며, 그로 인해 국제화의 초석이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보존연합 오정희 상임이사는 키아츠와 MOU협약식 및 감사배

전달식을 함께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와 해외에서까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구례 군민들은 이를 통하여 군민의 경제가 살아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5월 28일 구례군 섬진강 흠에서 개최된 군민들의 행사에서는 지리산의 왕시루봉 선교 유적과 매천사, 칠의사 세 곳이 앞으로 구례 관광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왕시루봉 유적지를 발표한 양준식 씨는 '기독교인은 천만 명인데 그들이 십 년에 한 번씩만 구례 선교사 유적지를 다녀간다고 해도, 일 년에 100만 명이 찾는 성지 순례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발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은 '전국 관광지 순위 100위 안에도 선정되지 못한 구례의 현실은 심정, 홍길동과 같은 인물을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볼 때, 있는 자원도 활용 못 한 구례 군민의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안타까워하였다.



왕시루봉 미국 Akrane 건축양식



복음 방송 프로그램 기획안 공모

CTS가 새롭고 창의적인 순수 복음 방송 프로그램 기획안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CTS 채널에서 방송할 정규 프로그램다 음세대, 찬양, 전도용 프로그램 다큐멘터리)과 특집 프로그램(절기·기념일)이다. 개인 및 단체, 외주제작사, 프리랜서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대상(1

편) 100만원, 최우수상(2편) 각 50만원, 우수상(3편) 각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전 참가자 중 10명을 추천하여 3만원의 참가상도 시상한다. 제출 서류 양식과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CTS 공식 홈페이지(www.cts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8월 20일까지이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37℃ 불볕더위에도 전도는 이어집니다!

가족세트 전도 집회를 마치고 전도를 준비함에 있어 권사님들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전도하느냐"라는 말에 "더워서 추워서 전도는 해야합니다"라며 가족세트전도법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와 함께 교회 주변 전설지역에 나가기 되었습니다.

37℃의 불볕더위 속에 얼굴은 뜨겁고 등에는 땀이 주르르 흐르는 가운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횡단 보도에서, 시장장에서, 버스승강장에서 등 모든 전도현장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며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과 교적카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능력전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전도법이었습니다. 25년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전도법으로 새 생명 축제를 해마다 해오던 중 이번엔 강력한 능력의 가족세트전도법을 알게 되었고, 더운 날씨와 힘든 상황 속에도 전도는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도전받는 큰 기쁨에 감동이 되는 불볕보다 더 뜨거운 전도현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세트전도교육을 받고 성공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성길 목사는 1년 동안 아침마다 전도하였지만 그 수는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영수 목사에게 전도교육을 받고 1년 동안 1,200명을 전도했습니다. 예전의 방법대로라면 200년 걸릴 것을 1년 만에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또 춘천에 사는 1급 시각장애인 김지훈 목사는 지난 가을 강원도 속초에서 가족세트전도컨퍼런스 집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후 매주 전도를 하였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 반지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세트전도는 전도 물품 없이도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강력한 전도법입니다.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광주지부 기쁨의교회 박정순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

임랑해변 일대를 걸으며 심신 단련... 스포츠선교위원회 산하 걷기동우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결성한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김순구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회장 홍현철 목사) 회원들은 지난 7월 22일(월) 낮 12시 경남 양산시 북부동 은혜와사랑의교회(담임 유봉수 목사)에서 모여 경남 임랑해변 일대를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먼저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를 비롯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 등 동우회 회원들은 은혜와사랑의교회(담임 유봉수 목사)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부회장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석현 목사의

의 대표기도, 유봉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건강한 육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충남 바른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진홍 목사를 강사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사례와 인권위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활동상황에 대한 특강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권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등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제목기도 시간에는 박영옥 목사가 '조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백영자 목사가 '정책위원장과 교단 발전을 위해' 최남성 목사가 '무슬림, 동성애, 사회악법 제거를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회원들은 2부 행사로 은혜와사랑의교회(담임 유봉수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뒤 임랑해변으로 이동하여 임랑해변 일대를 걸으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사랑 나눔의 시간을 갖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회지로 향했다.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아름다운 전원교회 이목순복음교회



이문근 목사(이목순복음교회)

80여 년의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 교회 주변에 푸르른 잔디로 땀 흘려서 전

여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목순복음교회.

이목순복음교회는 80년 세월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역사회복음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 파하고 있다. 이목순복음교회는 현재 담임목사 이문근 목사의 친할머니 정면 설립자에 의해 1937년 대한기독교장로회 이목교회로 세워져 마을 사람들의 갈급한 심령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나갔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정면 설립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마을에서 병 고침 받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자락을 교회로 한뼘하고 교역자로 봉직하게 되었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유, 방언 등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마귀 들린 사람이라며 쫓겨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흠여졌던 성도들을 다시 모아서 이목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이 또한 순탄치 않았다. 마귀들린 사람이

세운 교회라며 장로교단에서 제명당하고 1951년 하나님의성회 전신인 조선오순절교회에 가입했다가 1953년 하나님의성회 창립으로 교단에 가입했다.

교역자 정면은 73세로 은퇴한 뒤 1963년 이문근 목사의 부친인 이원영 교역자가 취임하여 1981년에 은퇴한 이후 1982년 이문근 목사가 3대 교역자로 취임



이문근 목사의 친할머니인 설립자 정면

임하여 1992년과 1993년에 지금의 성전 1층과 2층을 신축 봉헌하게 된다.

이문근 목사는 어린아이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한 가족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말씀이 생활화 되도록 성도를 한 분 한 분 섬세하게 돌보며 사랑을 나누고 소통하기에 힘쓰고 있다.

새로 건축을 완료한 식당 한켠에 마련한 사랑의

카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청주 시내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이목순복음교회는 청주 시내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가 한껏 기대감으로 찾는 교회가 되고 있다.

이목순복음교회 담임 이문근 목사는 누구에게나 기대고 싶을 때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목순복음교회가 할렐의 도구가 되기를 바랐다.



2016년 본당 옆에 건축된 식당과 카페



아름다운 전원교회 이목순복음교회 전경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이목순복음교회 대성전 내부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의교회 권사

다윗처럼 그렇게...



아주 먼 태고적 이야기
까마득한 그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들리기 시작한 어느 여름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 살았던
아프고 슬픈 가족이야기는
나의 근본을 흔들며 가던 길을 멈추게 한다

잡히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마음이란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비밀을 깨달은
무렵던 새벽 기도시간

몰릴듯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채워지니
무겁던 마음 사라져 솜털처럼 가볍다
물음표 투성이던 삶이 느낌표가 되어진 날이다

주체할 길 없는 빛이 나를 감싸고
긴 어둠속 터널 밖의 또 다른 세상
새로운 만남의 감격과 그 벅찬 감동의 연속..
주를 향한 마음이 너무 진하여
다윗처럼 그렇게 시를 쓰고 싶었고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싶었다.

창세기 말씀 2장~4장을 통해
내가 어디에서왔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그날 새벽기도시간.. 내가 거듭난 날이었다.

경기도 나쁜 성평등조례 재의·재개정 요구 빗발쳐

도민연합 “지방자치법 제107조 의거 도지사가 재의 요구해야”

228개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조례’를 마련
해두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를 포함한 14곳 지방자
치단체가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의 조례를 제정하
고 있어 재의와 재개정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성평등백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적 지
향’(동성애, 양성애, 제3의 성) 등 성차별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양성평등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성평등조례’라고 칭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회 보고서에도 ‘양성평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차이의 평등을 뜻하고, ‘성평등’은 사회적, 후천적
성에 따른 평등이기에 서로 다르다며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토록, 또한 헌법에서 ‘양
성’을 삭제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개헌이 무산되면서 ‘양성평등’은 존치
됐다. 이에 ‘건강한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 성평등 조례
역시 ‘양성평등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 곳은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천시, 인
전광역시 부평구, 서울시 서대문구, 성북구,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파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등이다. 나머지 228개 지자체는 모두
‘양성평등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실상기상으로 7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
기도 성평등 조례 제65조는 모든 사용자에게까지 성
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도민연합
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적극적 조치
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나쁜 경기도 성평등 조례
는 경기도 내 모든 사용자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
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 위반’이라
고 질타했다.

논란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에는 운영 재원 비
용까지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졸속
통과되었다는 것이 다수 도민들이 비판하는 부분
이다.

도민연합은 이에 대해 “도의회사부처 입법정책
담당관의 조례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지방자치
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도지사 의견
도 청취하지 않은 듯하다”고 개탄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민연합은
“문제 많고 도민들이 원치 않는 나쁜 조례는 즉시
폐기·전면재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조례의 내용
이 도의회의 월권이거나 법령 위반과 도민들이 공
익을 해칠 문제조항이 있으니 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도의
회는 이를 겸허히 받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설

총체적 어려움 극복 오직 기도 뿐

한·미·일 삼각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과 러시아
가 그 틈에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
사일까지 발사한 예민한 시기에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에
모이겠다. 그러나 볼튼 보좌관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미
일 안보동맹의 균열로 이어지는 현실을 중·러의 무력 도
발과 북한의 위협을 통해 확인하고도 잠정 모른 채했다.

한·일 갈등, 중·러 도발 등에는 적극 개입을 꺼리
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미
국 이익 확대에 부합하는 ‘안보 청구서’는 테이블 위에
놓고 떠났다. 지금 미국의 행태는 불난 집에 차와 도
움을 주기는 커녕 빛 독촉 하는 형국이다.

한편, 5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의 명칭조차 북한
비위를 맞추느라 정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진행 중
이다. 기존의 울지프림기디언(UFG)은 고사하고 정체
불명의 ‘19-2 동맹 연습’조차 사라졌다. 대한민국 안
보와 한·미 동맹이 어느 정도 추락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
제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첫 훈련이
라고 한다. 당면한 주적인 북한에 이렇게 절절대는 행태
로 어떻게 전시작전을 지휘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이렇게 비굴한데도 북한은 6월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을 능멸하는 ‘답보’까지 발표했다.

이쯤조차 없는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

련으로 진행되고, 유사시 북한 지역으로의 반격은 생략
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실효성조차 의문이
다. 연합훈련의 중요 목표 중의 하나가 역지력을 과시함
으로써 북한에 ‘울바른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이 측면
에서도 이번 훈련의 성과는 불분명해 보인다.

이번 저지세를 보이니 북한은 더 기고만강해 날뛰
다. 6일 오전엔 서울과 가까운 황해남도에서 또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외무성 발표를 통해 “남조선이 그렇
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
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했다. 이번 위협과 모
욕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안보의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와중에 일본은 경제전쟁을 일으켜 훈련을 기증
시키고 있다. 한국에 대해 가해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
도 있다면 한국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 지
금 같은 경제전쟁을 벌일 수는 없다. 개인이 민간기업에
제기한 것에 상관없는 정부가 나서서 국가 전체를 뒤흔
드는 경제전쟁을 벌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납득할 수 없
다.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져 좋은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이웃나라로서 도리를 다하고 미
래를 위해 협력하고 형통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기
도해야 할 때이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지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
리라”(잠 18:13)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폐지 촉구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이
에 이렇듯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이다. 지난 7월 29일 경
기도의 시민 단체와 기독교, 종교계가 일어나 <건강한경
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하여,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한다’는 집회를 3000여명이 모여서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38개의 연합 단체와 각 종교 단체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산
하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앞으로 이 단체에
서는 경기도가 이번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각종 운동을
펼쳐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자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에 8월 1일 현재, 50,631명이 추천하
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5만 명 이상이 의견을 청원하면,
도지사 및 관련부처 실·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민은 1,315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들에게 불필
요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과 불만을 안겨 주고, 도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
단되어야 한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기
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
례’도 재의를 통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이 조례는 국민
의 기본법인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심의 평등’에 정
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배성환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0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9. 8. 30(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자료실→서식다운로드→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2부 작성→지방회에 제출→지방회임원회 심의→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중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9. 9. 05(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9. 9. 26(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① 납부일: 2019. 8. 30(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0. 2. 10(월)~11(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9th 훌륭한 군사

더 의식 하라

The consciousness

일시- 9월 11일~14일

대상- 19세이상 청년

회비- 거져받았으니 거져주라

장소- 괴산 순복음교회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194-1)

인터뷰후 등록 010-5145-3816

ENHAKKORE MINISTRY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추계세미나 및 야유회

특강

설교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
교단 총회장
새김전교회 담임

일 시 2019년 9월 23일(월)~9월 24일(화) 1박 2일

장 소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031-298-3739)

대 상 전국 여교역자국
문 의 국장 백영자 목사 (010-3638-0120)

계좌번호 농협 351-1062-4189-93(백영자)

회 비 일만원(접수시 입금)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하나님과 동역하라”
- 고전 3:9 -

2019년 추계세미나 및 야유회 일정표

	9월 23일(월)	9월 24일(화)
07:00		
08:00		식사
09:00		폐회예배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개회예배 설교 : 신재영 총회장	곤지암 화담숲으로 출발 ↓ 도착 후 점심식사 ↓ 화담숲 거닐며 힐링을~~~
16:00		
17:00	제1강의 강사 : 조용목 정책위원장	
18:00		
19:00	저녁식사	
20:00	제2강의 & 기도회	
21:00	강사 : 김용덕 증경총회장	
22:00		

모시는 글

할렐루야

전국 각지에서 복음의 나팔이 되어 헌신하시는
동역자인 여교역자 여러분!

오는 9월 23~24일 (1박2일), 벅찬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년 중 9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한창 무르익는 절실의 계절인데다가,

우리 여교역자 여러분을 만나 뵙는 절기와도 같은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기록에 의하면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신 때’가 9월이었으며(학 2:10),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신 때’ 또한 9월이었습니다.(스 7:1)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우리 전원성전에 모두 오셔서
은혜충만, 성령충만, 말씀충만의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직

임원단

운영부장	예배부장	선교부장	복지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	재정부장	행정부장	기획부장	행사부장
윤영부	김영부	김영부	김영부	김영부	김영부	김영부	김영부	김영부	김영부
순복음교회 한순남 목사	기성교회 조병희 목사	회복교회 김순자 목사	진리교회 이복순 목사	군영교회 김종배 목사	대전교회 안선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추계교회 김찬애 목사	일산교회 조영란 목사	순복음교회 이영순 목사

전국지부장

서울중부지부장 지부장 시랑과평교회 홍현자 목사	서울중앙지부장 지부장 예수교회 정애스더 목사	서울남부지부장 지부장 순복음교회 이현옥 목사	경기북부지부장 지부장 온누리교회 최금자 목사	경기중앙지부장 지부장 행복교회 김정순 목사	경기남부지부장 지부장 시냇가교회 표현자 목사	충청북도지부장 지부장 종성교회 서석자 목사	충청남도지부장 지부장 순복음교회 실수자 목사	대전지부장 지부장 목자교회 김희자 목사	충북지부장 지부장 늘푸른교회 서영란 목사
충남지부장 지부장 예수교회 한정숙 목사	충서지부장 지부장 서산교회 오수경 목사	충주지부장 지부장 행복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부장 지부장 세계교회 정금자 목사	영남동지부장 지부장 순복음교회 이순애 목사	부산지부장 지부장 하늘교회 김경옥 목사	부산동지부장 지부장 순복음교회 황연선 목사	전북지부장 지부장 순복음교회 이희숙 목사	광주지부장 지부장 순복음교회 황희숙 목사	호남지부장 지부장 순복음교회 정복례 목사
은진지부장 지부장 은혜교회 심연숙 목사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